

# 스포츠신문이 왜 경제 콘텐츠를 강화할까



올해로 창간 34주년을 맞은 스포츠서울이 지난 6월 10일 8개 면의 경제 콘텐츠를 별지로 한류타임즈를 선보였다. 1985년에 창간한 스포츠서울은 1999년 서울신문에서 분사, 올해 1월 법인명을 경제전문매체 한류타임즈로 변경하고, 스포츠서울, 한류타임즈 두 개의 브랜드를 갖고 편집국도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포츠서울에서는 스포츠, 연예 콘텐츠를, 한류타임즈에서는 경제 콘텐츠를 맡고 있다.

지난 5월말 아주경제 산업부장 출신인 김종수 편집국장을 필두로 산업, 금융, 증권, 부동산, 유통·중기팀 등을 꾸리고 종합경제뉴스를 다룬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스포츠서울은 6월 19일 한류타임즈의 성대한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회사의 건실함을 증명하는 듯 했으나, 다음날인 6월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21일 감사의견 공시 결과 상장폐지 사유인 '의견 거절'이 공시됐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급기야 한

류타임즈는 8월 1일 이락범 전 회장, 이인로 전 부사장, 유지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액은 약261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 별도기준 자기자본 대비 83.41% 수준이라고 한다.

두 달여 동안 벌어진 한류타임즈 사건을 보며 광고계에서는 "스포츠지가 경제산업면에 열을 올리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등도 경제산업부를 운영하며 기업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한 기업의 홍보팀장은 "스포츠신문이 경제·산업·기업 관련 기사를 쓰는 건 뻔한 거 아닌가. 기업들에게 광고 협찬 끌어오려는 속셈"이라며 "기업과 관계를 맺고 광고 협찬에 끌어들이려면 경제산업부가 있어야 되니까 앞 다투어 경제면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고계 한 인사는 "스포츠신문은 웹이나 지면 광고 수입보다 행사 협찬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기업 홍보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

# 방통위, 방송 협찬 투명성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명문화하고,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정의와 허용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 협찬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이나, 경품용으로 받은 상품권을 스태프의 급여로 사용하는 '상

품권 페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페이 등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 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도 규정했다.

향후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 A A**

김다혜 [dahye@kaa.or.kr](mailto:dahye@kaa.or.kr)